



선두 11개사 매출변동 극히 적어 실적 18%부터 -14.9%까지 다양

선두 11개사의 순위 변동은 극히 적었다. 신젠타는 2위 바이엘과의 매출 격차를 늘려 농약산업계를 선도하였다. 몬산토는 연속 두 자리 수 하락의 부진을 보였다. 스미트모화학이 뉴팜 지분의 20%를, 캄차이나가 막테심-아간 지분 60%매입한 인수합병이 주목할 만하다. 선도회사별 현황을 알아본다.

신젠타(Synge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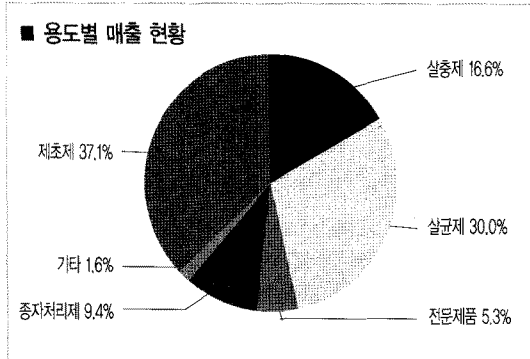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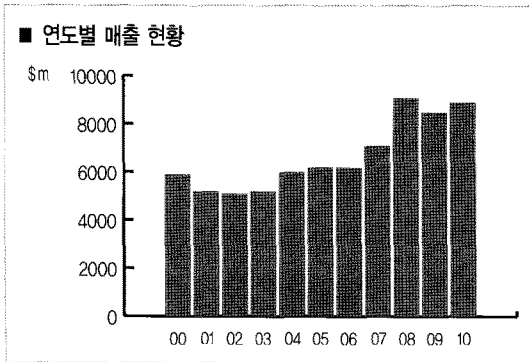
농약 매출액은 4.6% 증가한 88억7천8백만 달러로, 농약산업계의 선두자리를 유지하였다. 2000년 이후 매출액은 연간 평균 4.2% 성장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7.0%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0매출은 특히 살균제 및 살충제에 대한 남미지역과 아시아의 신흥시장이 주도하였다. 합병이래로 핵심 운영자산인 대형품목의 막대한 매출이 회사의 매출증가를 더했고 결과적으로 2008년 바이엘을 앞질러 농약산업의 선두회사가 되었다.

지역별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의 매출은 하반기 회복세가 있었으나, 긴 겨울과 서유럽의 높은 유통재고로 결과적으로는 0.7% 감소했다. 우크라이나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동유럽 매출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지역(NAFTA)의 매출은 높은 유통재고 및 가

격경쟁으로 인해 7.2% 하락했다. 하반기 매출액은 호전되었고 특히 선택성 제초제와 옥수수 관련 살균제 매출이 호전되었다. 남미지역의 매출액은 20.6% 증가하여 가장 큰 강세를 보인 지역으로, 이러한 성장은 대단위면적으로 콩 녹병 방제에 따른 것이다. 아·태지역 매출액은 14.5% 증가하였고 이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중국, 인도, 베트남의 주도로 성장을 유도하였다

약제별 제초제는 2.0% 하락하였다. 주요인은 비선택성 제초제의 13.5% 하락에 따른 것이다. 이는 glyphosate 가격 및 판매량 감소가 가장 큰 결과이다. 선택성 제초제는 3.9% 증가하였고 이는 mesotrione과 같은 콩과 관련된 제초제에 따른 것이다. 살균제 시장은 azoxystrobin의 20% 증가한 1억2천백만 달러에 힘입어 9.0% 증가되었다. 전반적인 수요는

남미지역과 아시아가 가장 컸으며, 북미의 성장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상쇄되었다. 살충제는 12.4% 증가하였고 이는 thiamethoxam과 chlorantraniliprole의 지속적인 매출신장에 따른 것이다. 종자처리제 매출은 2.1% 증가하였고 이는 신흥시장의 큰 수요에 따른 것이나 미국의 높은 재고의 여파로 일부 상쇄되었다.



바이엘(Bayer Crop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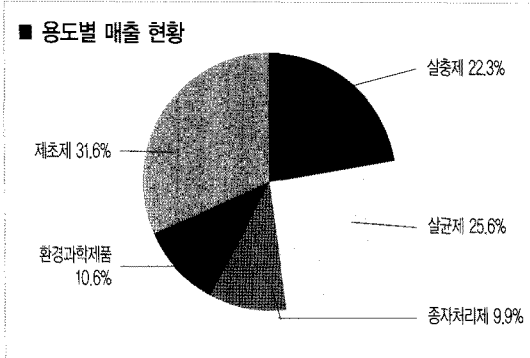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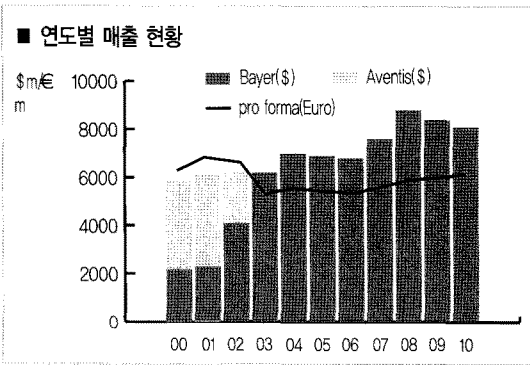
농약 매출액은 2.3% 증가한 61억4천3백만 유로이나 달러화 기준으로는 2.5% 하락한 81억4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젠타와 판매격차는 7억3천8백만 달러로 2위에 머물렀다. 2000년 이래 달러로는 3.4% 증가했으나, 유로로는 변

화가 없었다. 2005년 이래 달러로는 3.3% 증가했고, 유로로는 2.0% 증가했다. 기후의 악조건과 높은 재고 및 가격 압박으로 제약을 받았고, 이는 유럽과 북미에 제초제 및 살균제의 판매량 저조를 유도했다

지역별 유럽 매출은 달러로 11.9% 감소(유로 7.6%감소)하였다. 불리한 기후와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프랑스의 사업이 특히 위축되었다. 북미 매출은 달러로 11.9%감소(유로 7.6% 감소)하였고 이는 높은 재고와 가격 압력으로 제초제 및 살균제 수요의 큰 감소를 가져왔다. 아·태지역의 매출액은 달러로 11.9% 증가(유로 17.4%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 오스트리아 및 중국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것이고, 일본의 매출 감소가 일부 상쇄되었다. 남미지역, 아프리카, 중동의 매출은 달러로 12.4% 증가(유로 17.9% 증가)하였고 이는 남미지역과 터키가 주도하였다. 남미지역은 신규품목으로 인해 살균, 살충, 제초제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종자처리제는 위축되었다.

약제별 제초제 매출은 달러로 6.7%(유로 2.1%감소) 감소했다. 이는 낮은 수요와 높은 재고 및 가격하락이 원인이었다. 주요 제초제 품목인 Basta/Liberty (Glufosinate)의 매출액은 2.3% 하락했다. 살충제 매출은 달러로 5.8%(유로 11.0% 증가) 증가하였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지역의 높은 수요에 따른 것이다. 살균제 매출은 기상악화, 제네릭 경쟁 및 가격 압

박 등으로 달러로 4.3%(유로 0.4% 증가)하락했다. 종자처리제 매출은 달러로 9.3%(유로 4.8% 하락)로 하락했고 유럽 및 남미지역 시장 위축에 따른 것이다. 미국 매출은 호전되었다.



바스프(BASF)

최근 성장세를 이어, 10.6% 오른 40억3천3백만 유로(53억4천4백만 달러, 5.5% 증가)를 기록, 3위에 올랐다. 매출 성장은 높은 판매수량이 낮은 가격의 여파를 상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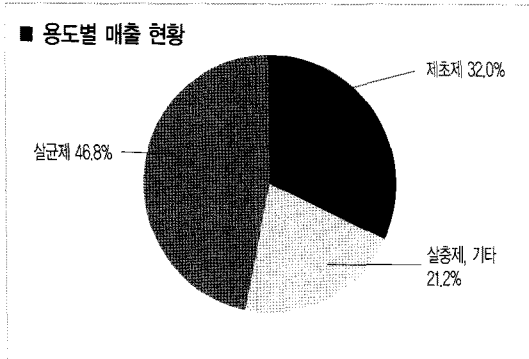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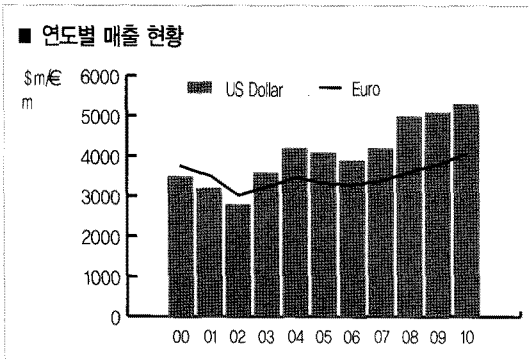
특히 제초제 매출이 좋았으며, 일부분은 Kixor(saflufenacil)의 성공에 기인된 것이다. 2000년 이후 BASF 매출액은 유로로 0.9%(달러로 4.6%) 증가하였다. 과거 5년간 농약 평균

매출액 성장은 유로로 4.1%(달러 5.5%)였다.

지역별 유럽 매출은 달러로 1.8% 하락했으나 유로로는 30% 증가하였다. 하반기의 높은 수요가 긴 겨울로 인한 초반의 저조한 판매량을 회복하였다. 특히 동유럽의 매출이 좋았다. 북미는 달러로 4.7%(유로로 9.8%증가) 증가하였다. 이는 Kixor의 성공적인 출시와 Headline(pyraclostrobin)의 높은 수요 때문이다. 남미지역은 가장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달러로 17.2%(유로로 22.9%증가) 증가 하였다, 이는 사탕수수 살충제, 콩 살균제 그리고 신규 종자처리제 'Standak Top(pyraclostrobin + thiophanate-methyl + fipronil)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아·태지역은 달러로 10.5%(유로로 15.9% 증가) 증가하였다. 인도의 사업은 특수성에 따라 콩 제초제 및 살균제의 높은 수요가 있었다.

약제별 살균제 매출은 달러로 3.2% 감소하였다. 이는 불리한 기후, 재고 감소 및 가격 하락의 종합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Headline(pyraclostrobin)은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제초제 매출은 달러로 15.5% 증가했고, 주로 Kixor가 미국과 남미지역 시장의 성공적인 출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전반적으로 제초제는 동유럽과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살충제 및 기타 농약 매출은 9.4% 증가했다. 매출성장은 브라질의 사탕수수와 관련된 살충제 덕택이다. 콩 종자처리제

‘Standak Top’ (pyraclostrobin + thiophanate-methyl + fipronil) 출시 또한 좋은 반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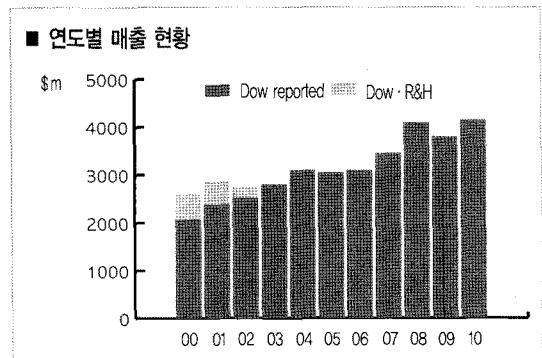
다우 아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

매출은 5.2% 증가한 41억7백만 달러로 4위 에 올랐다. 2000년 이후 매년 7.0% 성장하였다. 지난 5년간 매출 성장은 평균 5.9%였다. 불리한 기후 및 낮은 가격의 영향을 받았으나 신규품목 의 강한 성장세로 인해 전반적인 매출은 증가하 였다. 2001년 롬앤하스 농약사업부를 인수한 이 후 유기적 성장을 통해 매출이 신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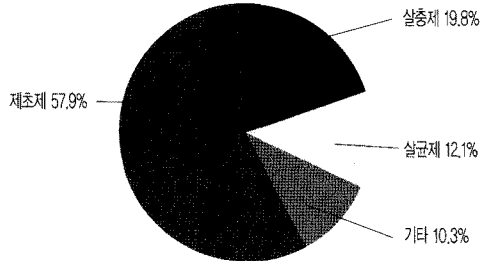
지역별 북미 매출은 신규품목의 매출신장 으로 1.9% 증가했으나, 불리한 기후, 가격압박

및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의 저조한 판매 로 일부 상쇄되었다. 남미지역은 12.5% 매출성 장을 보여 가장 큰 실적을 낸 지역이다. 이 같은 성장은 목초지 등 넓은 면적의 재배지역에서의 높은 수요와 신규품목 출시에 따른 것이다. 유 럽은 하반기에 판매 회복으로 1.5% 증가했다. 농약사업은 불리한 기후, 낮은 곡물가격 및 상 반기 제초제 수요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태지역 매출은 인도와 중국의 농약사업에 힘입어 6.0% 증가하였다. 오스트리아는 강우로 인해 살균제의 수요가 호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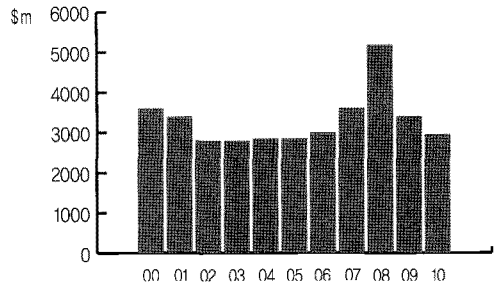
약제별 제초제 매출은 5.3% 증가했고, penoxsulam, pyroxsulam, 그 리 고 aminopyralid와 같은 제품의 최근 출시로 매출 성장에 기여하였다. 유럽의 곡물류 제초제 판매 는 하반기 회복세를 보였으나, 글라이포세이트 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살충제 매출은 spinetoram의 확대로 8.3% 증가했다. 살균제 매출은 남미지역과 아·태지역의 매출액이 유 럽과 북미의 낮은 수요를 상쇄하고서도 1.0% 증가했다. 기타 농약 매출은 3.9% 증가했다.



■ 용도별 매출 현황



■ 연도별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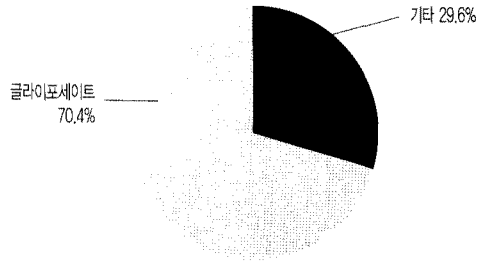
몬산토(Monsanto)

매출이 두 해 연속 두 자리 수 하락했는데 이는 글라이포세이트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의한 것이다. 2010 매출은 29억1천5백만 달러로 14.9% 하락하여, 5위를 기록하였다. 매출성장은 2000년 이래로 매년 평균-1.9% 였다. 2009년과 2010년도의 급격한 매출하락에도 불구하고 5개년 1.1%의 평균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2007년과 2008년의 매출신장에 의한 것이다. 지난 2년간의 매출하락은 불리한 기후와 수요 감소 그리고 글라이포세이트의 치열한 가격경쟁에 의한 것이다.

지역별 북미 매출은 22.7% 하락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제네릭 경쟁 심화와 브랜드 가격이 급격히 하락되었고, 긴 겨울로 인한 작물 재배지연은 일발처리제 사용량을 감소시켰다. 글라이포세이트의 가격 하락으로 남미지역 매출은 5.4%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판매수량의 회복과 제품의 높은 수요로 일부 상쇄되었다.

유럽의 매출은 18.8% 감소되었다. 사업시기 지연과 일발처리제의 수요저조 및 낮은 가격에

■ 용도별 매출 현황



의한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매출은 6.4% 하락한 반면 극동지역에서는 4.1% 하락했다.

약제별 2010년도 글라이포세이트의 매출은 20억5천3백만달러로 20.2%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2008년도 농약 매출액의 88%를 점유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단지 70%에 머물렀다. 수요는 상반기에 매우 저조하였고, 이는 불리한 기후조건에 따른 이앙전 일발처리제의 처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낮은 판매가격이 금년도 판매 저조를 일으켰다. 하반기 가격의 안정세로 판매수량은 회복세를 보였다. 기타 농약 매출은 8억6천2백만달러로 1.2% 증가했고, 이 같은 성장은 남미지역의 acetochlor의 수요증가와 종자처리제의 매출신장에 따른 것이다. ㉞